

IV. 고시원

1. 일반사항

- 소재지: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2008년 10월 20일 08시 15분
- 발화장소: 고시원(3층)
- 인명피해: 13명(사망6명, 부상7명)
- 발화원인: 방화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2008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범인이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고시원에 불을 내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들을 무참히 찢어 살해 및 중상을 입혔다.



사진 1., 2., 3., 4. 고시원 화재 현장

사진 1. 사진 2. 사진 3. 화재로 까맣게 탄 고시원 내부. 최초 발화지점이 있던 B구역은 전체가 검게 타거나 그을린 모습이었다. 화재가 난 맞은편 구역의 고시원 내부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여주듯 개인 물건들이 방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연합뉴스)

사진 4. 화재현장 모습(소방방재청 블로그)

3. 피해상황

고시원의 3개 층이 일부 전소했으며 피해자는 중국동포를 포함 사망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범인은 방화,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V. 노래주점

1. 일반사항

- 소재지: 부산시
- 사고일시: 2009년 1월 14일 20시 44분 경
- 발화장소: 지상6층/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노래주점
- 재산피해: 30,100천원
- 인명피해: 9명(사망 8명, 부상 1명)
- 발화원인: 전기적 요인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6층, 지하1층(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며 화재는 지하1층 노래주점에서 발생하였다.

최초 목격자인 남자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6번 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메케한 냄새가 났고 비상구 및 7번 룸 복도 천장에서 연기가 자욱한 것을 목격하고, 주방보조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뒤, 7번 룸과 대기실 복도에서 양쪽 방의 벽을 두드리며 화재사실을 알렸다.

화재신고를 접수한 후 소방차가 12대 출동하였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동시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출입구가 좁고 주점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차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기실에 있던 여 종업원 4명은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2명은 후문 비상구로 빠져나왔고, 2명은 남자 종업원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뒤에 오던 1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 간발의 차이로 7번 룸에서 나오던 손님 일행은 바로 옆에 후문 비상구가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들어온 출입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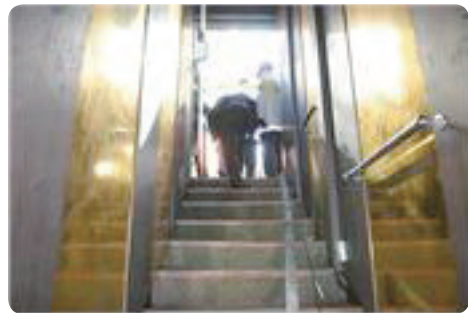


사진 1. 어른 2명이 지나가기에는 좁은 출입구
지상연결 계단



사진 2. 화재진압 현장



▲ 부산 영도경찰서가 작성한 사고당시 상황도 (부산영도경찰서 제공/노컷뉴스)

그림 1. 노래주점 화재상황 및 사상자 위치

현장 확인 결과 노래주점 총 7개 룸 중 6번 룸 천장 및 벽체, 소파 등이 전체적으로 소실되고 나머지 룸들은 그을음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사진 3. 화재발생 6번 룸 내부

6번 룸 천장 환풍기 전원선의 불완전 접속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환풍기 플라스틱 구조물 및 주변 목재 등의 구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환풍기 캡이 그 아래 실내 소파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진전이 되어 천장과 소파, 벽 등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실내와 천장으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상황

지하1층 전체 면적 중 50%를 차지하는 노래방의 85%가 소실되었다. 당시 노래방에는 손님 8명, 남자 종업원 1명, 여자 종업원 4명, 주방 아줌마 1명 총 14명이 있었다. 사상자는 화재가 발생한 6번 룸이 아닌 입구 쪽 3번 룸에서 5명, 5번 룸에서 1명, 후문입구 앞에서 2명, 출입구 앞 쪽에서 1명이 발견되었다. 지상 1층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은 연기에 놀라 대피하였고, 지상2~6층 숙박업소에서의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4. 3번 룸(사망5명)